



♣ 산림청, 건국 60주년 기념해 국내 최대규모 무궁화 축제 ♣

- 8.12~17일 물향기수목원에서 1,300여점 우수 무궁화 분화작품 전시 등 행사 -

오는 8월12일~17일까지 경기도 오산시 소재 물향기수목원에서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고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이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는「제1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가 열린다.

이번 무궁화 축제에는 전국 시·도 및 무궁화 애호가들이 출품한 1,100여점의 무궁화 분화작품(화분에 키운 작품)과 160여점의 무궁화 분재작품, 80여종의 무궁화 품종이 전시되고, 전문가들의 품평회를 거쳐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받아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20여점의 무궁화 분화작품도 전시되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아름답고 다양한 종류의 무궁화가 선보인다.

또한 국민들이 평소 무궁화를 키우고 가꾸며 생활속에서 좀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궁화 사진찍기, 무궁화 차 마시기, 생활 속 무궁화 찾기, 페이스 페인팅, 무궁화 종이접기, 목공예 만들기 등 다채로운 무궁화 체험행사도 열린다. 아울러 무궁화 공예작품 전시와 무궁화 나누어주기, 청소년과 함께하는 퀴즈 골든벨, 무궁화 페스티벌 등 다양한 참여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이번 무궁화 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해 관람할 수 있으며 수목원의 다양한 수목생태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무궁화는 다른 유사 종에 비해 꽃이 아름답고 추위에 강해 세계에 널리 분포해 있다. 무궁화 품종은 전 세계적으로 200여종에 이르며 우리나라에는 70여종의 무궁화가 존재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지난 2005년 실내에서도 화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가정 보급형 무궁화 신품종인「별이」를 개발하여 일반에 보급하는 등 우수 무궁화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산림청, 캄보디아 산림자원개발 초읽기 ♣

- 훈센 총리, 산림청에 앙코르왓 산림복원 / 펄프재 조림 등 요청 -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우리나라 산림청장에 자국내 고무나무, 펄프재 조림 투자와 앙코르왓 주변 황폐산림에 대한 복원조림을 요청해 오며 따라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산림자원개발 진출이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지난 달 29일부터 국내 산림투자기업들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교류를 펼치고 있는 하영제 산림청장은 캄보디아 측의 요청으로 6월3일 훈센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캄보디아에 고무나무 조림과 펄프재 생산을 위한 아카시아 조림에 한국 기업이 투자해 줄 것과 산림 녹화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정부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왓 주변의 황폐산림을 복원해 줄 것을 훈센 총리로부터 직접 요청받은 것.

이에 하 청장은 산업조림은 물론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우리 기업이 관심이 많음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했고, 앙코르왓 주변 황폐 산림복원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하 청장은 훈센 총리 예방에 이어 소쿰 캄보디아 산림청장과 의『한-캄보디아 산림협력 양해각서』체결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통한 목재자원의 생산, 산불·산림병해충 방지 및 산림생태계의 안정을 위한 산림녹화 사업 등 양국간 산림 자원 개발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산림자원 개발 및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정부차원의 산림협력 협의체인『한-캄보디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구성, 2년 마다 교차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로써는 부족한 산림자원 확보 및 투자 기업들의 투자 보호를 도모하고, 캄보디아로써는 산림녹화 선진기술 전수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원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국은 그동안 산림협력관계가 활발하지 못했던 가운데 이번『한-캄보디아 산림협력 양해각서』체결을 계기로 잠재력이 풍부한 캄보디아 산림자원 개발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캄보디아에 산림자원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오룡건설, 무학주정 등 9개 기업(6만5천ha)은 물론 향후 캄보디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및 투자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내 목재소비량의 90%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 값의 급등과 목재자원 보유국의 원목 수출제한, 수출세 부과 등으로 해외 목재자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해외조림 등 직접 산림개발을 통한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산지약용식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자 공모♣

- 전국 2개단지에 총 24억원 규모 사업비 투입 -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전국의 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총 24억원 규모의「산지약용식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자를 공모한다.

강식품, 자연식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각종 산지약용식물을 산업화하기 위해 추진하는「산지약용식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이번 공모를 통해 2개 단지를 선정, 총 24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1개 단지의 규모가 10ha 이상이어야 하며 1개 단지당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사업자 자부담 40%로 12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20일까지 전국 시·군 및 시·도 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모결과는 심사를 통해 6월말 개별통보 할 계획이다.

※ 세부 공모요령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소식의 숲 → 산림청 공고 참조

산림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산림소득지원사업이 지역별 균등배분 형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상호경쟁을 원칙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임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겠다" 고 밝혔다.

♣ 공개경쟁의 확대로 산림사업의 투명성 향상 ♣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도 산림사업 수주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은 감소하고 경쟁입찰이 증가하는 등 산림사업의 개방화와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산림사업 수주의 투명성과 품질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실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개경쟁의 확대로 산림사업법인의 수주가 증가한 반면 산림조합의 수주는 감소하고 있다.

- 조합 수주비율 : ('01) 98% → ('03) 93% → ('05) 90% → ('07) 75%
- 법인 수주비율 : ('01) 2% → ('03) 7% → ('05) 10% → ('07) 25%

산림사업의 수주방법별로는 수의계약 62%, 공개경쟁 31%, 대행위탁 5%, 보조사업 2%순이며, 사업별 공개경쟁율은 나무병원(68%), 숲가꾸기(37%), 산림토목(25%), 산림경영계획(15%), 휴양림조성(9%)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조합은 수의계약(84%), 산림사업법인은 공개경쟁(88%)에 의해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법인당 평균수주액은 증가추세에 있다

- 1개 법인당 수주액 : ('05) 1.6억원 → ('06) 2.2 → ('07) 3.1

산림사업의 규모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47%), 산림토목(46%), 휴양림조성(3%), 나무병원(0.5%), 경영계획(0.5%) 순으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산림토목사업이 93%로 산림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별 건당 수주액은 산림토목(130백만원), 휴양림조성(107백만원) 숲가꾸기(38백만원), 경영계획(24백만원), 나무병원(18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전국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 ♣

2008. 7. 29. 현재

시·도	시·도·군	읍·면·동	면적(ha)	
11개시·도	63시·군·구	574개읍·면·동	1,286,043	
서울	2	20	3,270	
	노원구	15	2,022	
	중랑구	5	1,248	
부산	14	171	61,687	
	서구	11	1,247	
	동구	17	977	
	부산진구	25	2,968	
	동래구	14	1,664	
	북구	13	3,830	
	해운대구	15	4,992	
	사하구	12	3,626	
	금정구	18	6,519	
	강서구	2	7,768	
	연제구	13	1,208	
	수영구	10	1,021	
	사상구	14	3,584	
	기장군	5	21,790	
	남구	2	493	
	대구	3	5	10,656
북구		2	2,386	
달서구		1	933	
달성군		2	7,337	
울산	5	40	94,895	
	중구	5	1,316	
	남구	14	7,160	
	동구	2	1,060	
	북구	7	9,855	
	울주군	12	75,504	
경기	5	28	90,632	
	성남시	4	3,135	
	용인시	1	3,029	
	광주시	7	28,850	
	남양주시	11	39,682	
	포천시	5	15,936	
	강원	2	2	15,761
		춘천시	1	8,081

전북	원주시	1	7,680
	2	3	17,607
	임실군	2	9,261
전남	순창군	1	8,346
	2	4	7,998
	목포시	3	1,258
경북	신안군	1	6,740
	10	57	265,934
	포항시	6	38,173
	경주시	3	12,935
	안동시	20	98,129
	구미시	15	48,151
	영천시	2	3,920
	경산시	1	4,600
	청도군	2	15,502
	칠곡군	6	30,003
경남	상주시	1	9,105
	의성군	1	5,416
	17	223	658,163
	창원시	15	29,505
	마산시	32	32,997
	진주시	27	73,694
	진해시	4	7,423
	통영시	15	18,721
	사천시	14	39,697
	김해시	17	46,324
	밀양시	16	79,858
	거제시	16	40,148
	양산시	12	48,407
제주도	의령군	6	22,905
	함안군	10	41,680
	창녕군	4	14,838
	고성군	14	51,692
	하동군	9	41,039
	남해군	8	31,814
	산청군	4	37,421
	1	21	59,440
	제주시	21	59,440

※ 반출금지구역의 연접지역 : 반출금지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읍·면·동(연접 시·도 및 시·군·구 포함)